정치와평론 *Journal of Political Criticism 21 (2017.12), 193-215.*

Translation

막스 베버와 정치가: 볼프강 J. 몸젠 저작에 대한 재고찰*

Max Weber et Le Politique : Retour sur L'œuvre de Wolfgang J. Mommsen

히네르크 브룬스 _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Hinnerk Bruhns _CNRS
번역: 심성은 _한양대학교
Shim, Sungeun _Hanyang University

I. 서 론

막스 베버의 정치학 관련 주요 저작물[1]이 프랑스어로 번역, 출간되었던 것은 우연하게도 베버의 작품 및 정치적 활동에 대한 한 전문가가 사망한 시기와 중첩된다. 그는 바로 독일 역사가인 볼프강 J. 몸젠(1930-2004)이다. 몸젠의 대표적 저서인 『막스 베버와 독일 정치, 1890-1920』이 프랑스어로 번역된 것은 1985년이었는데, 이는 이 저서의 독일어 초판이 출판된 1959년 이후 4반세기가 지난 뒤의 일이었다.[2]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몸젠의 역할은 프랑스에서 일반인

---

* 이 논문은 다음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Hinnerk Bruhns, "Max Weber et le politique: retour sur l'œuvre de Wolfgang J. Mommsen" in Max Weber et le politique. Sous la direction de Hinnek Bruhns et Patrice Duran (Paris: L.G.D.J., 2009), 35-51. 이 논문의 번역을 허락해주신 히네르크 브룬스 교수, 번역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성은 박사, 독일어 문장 번역을 감수해 주신 임종헌 박사에게 각각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한국정치평론학회 편집이사 이현휘.

1) Max WEBER, Œuvres politiques 1895-1919, traduit de l'allemand par Elisabeth Kauffmann, JeanPhilippeMathieu et Marie-Ange Roy, présentation d'Elisabeth Kauffmann, introduction de CatherineColliot-Thélène (Paris: Albin Michel, 2004). Cité 'OP' dans la suite de ce texte.

2) Wolfgang J. Mommsen, *Max Weber et la politique allemande 1890-1920,* PUF (Paris, 1985). 이

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대부분 잊힌 것처럼 보인다.[3] 하지만 몸젠의 『막스 베버와 독일정치』 및 이 저서가 불러 일으켰던 논란, 저서 출간 후 이 저서에 대해 몇 십 년 동안 제기되었던 비판에 대한 몸젠의 반박, 베버의 저술 중 정치적인 면에 대한 몸젠의 분석 등을 언급하지 않고는 『막스 베버와 정치가』[4]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몸젠 저서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는 독일뿐 아니라,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몸젠의 저서가 여러 차례 출판되고, 다른 학자들의 베버 관련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5]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정치인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관심은 막스 베버의 일부 저서와 정치가 및 정치에 대한 연구에 대한 가치를 환기시켰다.[6] 물론 새로운 관점의 연구는 베버에게 새로운 질문을 하듯 베버의 방대한 저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40년 간 이와 같은 질문들은 지속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그 의미와 영향력 역시 큰 변화가 있었다. 몸젠이 1950년대 말에 빌헬름 2세[7] 당시의 독일 정치와 막스 베버에

프랑스어 번역본의 원작은, W. J. MOMMSEN, Max Weber und die deutsche Politik 1890-1920, Tübingen, 1ère éd. (1959). 프랑스어로는 1974년에 수정 및 보완되어 출간된 독일어본 제2판부터 번역되었다: 독일어본 1판과 2판의 서문과 후문은 번역되지 않았다. *Max Weber and German Politics 1890-1920,* traduit par Michael S. Steinber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3) 엘리자베스(Elisabeth Kaufmann)의 방대한 『전집(*Oeuvres politiques*)』에도 몸젠의 저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캐서린(Catherine Colliot-Thérène)의 서문에서 단 한 차례 가볍게 언급되었을 뿐이다, 85. 『전집』에 포함되어 있는 프랑소와(François Chazel)와 로랑(Laurent Fleury)의 글에는 언급되어 있다.

4) (역자 주) 『막스 베버와 정치가(Max Weber et le politique)』는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와 『직업으로서의 학문』의 프랑스어 번역본으로, 프랑스에서는 베버의 저서 두 권을 한 권으로 합본해 출간되었다.

5) 프랑스에서는 이미 수 년 전에 몸젠 저서 번역을 포기했다. 독일에서는 2004년에 3쇄가 출간되고 증보판이 나오는 것과 대조가 된다. 몸젠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프랑스에서 번역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파리의 한 세미나에서 몸젠에 관한 연구가 언급된 것이 전부다: Wolfgang J. Mommsen, "Max Weber et la pensée sociale contemporaine," *Bulletin de l'IHTP* 32 (juin 1988), 24-48 (Repris dans: P. Lascoumes éd. Actualité de Max Weber pour la sociologie du droit (Paris: LGDJ, 1995) [coll. Droit etsociété n° 14]).

6) 이와 관련해 다음 책을 참조한다. Sven Elianson and Kari Palonen, "Max Weber's Relevance as a Theorist of Politics", *Max Weber Studies (NWS),* 4(2) (2004), 135-142; Gregor Fitzi, *Max Webers Politisches Denken* (Konstanz: UVK Verlag, 2004).

7) (역자 주) 프로이센 제국의 왕으로 재위 기간은 1888년-1918년이었다.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집필하면서 베버에게 질문을 던진 셈인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첫 번째 세대가 제기했던 실존적인 질문과 유사한 것이었다. 이 질문들은 독일과 정치가, 국가, 민주주의, 바이마르공화국의 실패와 국가사회주의체제 등 독일의 현대사 관련 문제 간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다음의 제1부에서는 일대 사건이자 충격을 야기했던 몸젠의 1959년 저서 출판에 대해 상기하고, 그에 대한 베버 옹호자들의 반응과 신랄한 비판에 대해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프랑스에서는 거의 망각되다시피 했던 베버의 저서와 사상 중 정치적 측면에 대한 몸젠의 주요 분석들을 소개한다.

Ⅱ. 1959년 저서: 막스 베버와 독일 정치

1959년에 출간된 몸젠의 저서 『막스 베버와 독일 정치』는 같은 해에 쾰른대학에서 테오도르 쉬더(Theodor Shieder)의 지도로 집필된 박사논문이기도 하다. 총 10개의 장 제목들을 살펴보면 저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젊은 베버의 정치적 변모
2. 가부장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민족국가
3. 강력한 민족국가, 막스 베버의 정치 사상
4. 민족적 제국주의, 독일정치의 미래 임무
5. 막스 베버와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 내부의 정치 변동
6. 대외 정치와 내부 조직
7. 세계전쟁, 독일 제국이 겪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시련
8. 붕괴와 재시작
9. 막스 베버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태동
10. 자유입헌국가에서 국민투표에 기반한 패권 민주주의로[8]

8) 이 부분의 프랑스어 번역은 정확하지 않다: 독일어 원본은 *Plebiszitäre Führerdemokratie*이며, 그 뜻은 '한 수장의 권위 하에 국민투표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29세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은 볼프강 몸젠은 20세기 후반의 독일 역사학자 중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된다. 테오도르 몸젠의 증손자이기도 한 그는 베버 일가와 인척관계가 있었으며,[9] 그 덕분에 베버 일가가 보관하던 일부 기록과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볼프강 몸젠은(그의 쌍둥이 형제이자 노동운동과 국가 사회주의 전문가인 한스 몸젠처럼[10]) 테오도르 몸젠으로부터 일종의 정치에 대한 열망과 비판적인 혈통, 투지를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다. 몸젠 형제들은 독일 역사와 정치적 전통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했던 전후 첫 번째 역사가 세대에 속했다. 이 젊은 역사가들의 주된 관심은 국가사회주의 체제가 도래한 것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었다.[11] 독일 정치와 베버에 관한 몸젠의 저서는 1960년대 초반에 독일 사회에서 경험했던 어두운 시기가 시작되기 전에 완성된 것으로, 몸젠의 저서가 일으킨 논란은 '어두운 시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1960년, 함부르크의 역사가 프리츠 피셔(Fritz Fischer, 1908-1999)가 병합주의적 전쟁의 목적과 제1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독일의 책임에 대한 충격적인 저서를 출간했다.[12] 이는 국가-사회주의라는 과거에 대한 독일 사회의 작업, 즉 과거의 업적(Vergangenheitsbewältigung)에 대한 실질적인 관점이 시작된 것과 같은 시기였다. 특기할 만한 점은 몸젠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였던 테오도르 쉬더(1908-1984)[13]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가장 영향력 있으며 가장

9) 테오도르 몸젠의 아들인 에른스트 몸젠은 막스 베버의 누이인 클라라 베버와 혼인했다.

10) Voir : Hans MOMMSEN, Le national-socialisme et la société allemande. Dix essais d'histoire socialeet politique, préface par Henry Rousso, traduit par Françoise Laroche (Paris: MSH, 1997).

11) Hans-Ulrich Wehler, "Wolfgang J. Mommsen 1930-2004", *Geschichte und Gesellschaft* 31 (2005), H.1, 135-142.

12) Fritz Fischer, *Griff nach der Weltmacht. Die Kriegszielpolitik des kaiserlichen Deutschland1914/18* (Düsseldorf: Droste, 1961), 41971, éd. de poche 1994. Traduction française: Les Buts deguerre de l'Allemagne impériale (1914-1918), trad. de Geneviève Migeon et Henri Thiès, préface deJacques Droz (Paris: Trévise, 1970).

13) Cf. l'article consacré par Rüdiger Vom Bruch à Theodor Schieder dans Rüdiger Vom Bruch/ Rainer A. Müller, *Historikerlexikon. Von der Antike bis zur Gegenwart,* 2e éd., C. H. Beck, Munich,2002, et la nécrologie écrite par Hans-Ulrich Wehler dans *Geschichte und Gesellschaft* 11 (1985), 143-153. Voir aussi : W. J. Mommsen, "Vom Beruf des Historikers in einer Zeit beschleunigtenWandels", dans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33 (1985), 387-405.

명망 있는 서독 역사가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대중들이 쉬더 자신도 역사가로서 국가-사회주의 체제와 타협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쉬더의 어두운 과거는 사망한 이후에야 공론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쉬더는 전후 독일 역사학의 부활에 대한 주요 행위자이자 조직자로서 일종의 '자유주의적 다원주의'[14]를 보여주었던 한편, 젊은 비판적 역사가들을 격려하고 지지했는데 그 중 한 명이 볼프강 몸젠이었다. 그의 막스 베버에 대한 관심은 정치사적 측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역사 방법론적인 것과 관련이 있었다.[15]

볼프강 몸젠의 박사학위 출간은 독일 지식인들, 특히 막스 베버를 아직도 알고 있었던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박사학위는 학술적으로도 일대 사건이었으며, 베버에 관한 독일 현대 연구 중 많은 부분이 몸젠의 이 선구자적인 연구와 추후 작업에 의해 고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저서는 일종의 미완성으로 끝난 대형 프로젝트로 막스 베버의 저서와 서한을 집대성하고 주석을 단 『막스 베버-전집판(*Max Weber-Gesamtausgabe [MWG]*)』이었다고 할 수 있다.[16]

이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 이유는 몸젠이 막스 베버의 유산을 사립과 공립 기록보관소에 맡기도록 했으며, 프러시아 국가 기록보관소였던 동독의 메르세부르크(Merseburg) 기록보관소에서 베버의 정치적으로 중요한 서한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사료 덕분에 몸젠의 역사 박사학위 논문은 베버와 그의 저작들을 새로운 기반 위에 세워 놓을 수 있었다. 몸젠의 저서 출간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막스 베버를 독일의 정치 및 지적 전통을 통합하는 인물이자 제3제국이라는 어두운 시기와 관련된 온갖 의혹과 상관 없는 인격체로 간주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당시 베버는 독일 초기 민주주의의 아버지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14) Rüdiger vom Bruch, *ibid*.

15) Cf. Theodor Schieder, "Der Typus in der Geschichtswissenschaft", dans *Studium Generale,* 5,1952. Réimprimé dans ID., *Staat und Gesellschaft im Wandel unserer Zeit. Studien zur Geschichte des19. und 20. Jahrhunderts,* 2e éd.,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1970.

16) Voir sur l'état actuel de ce projet éditorial : Revue française de sociologie, 46(4) (2005), 941-944.

고 회자될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몸젠은 자신의 저서에서 베버를 다른 각도로 조명했는데, 바로 히틀러라는 독재자의 도래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했던 것이다. 몸젠은 베버를 이 독일 민주주의를 암살한 인물과 가까이 지냈다고 묘사하면서 베버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다.

몸젠의 작업이 사회학 잡지의 독자층인 학자 그룹을 벗어나 대중들에게까지 퍼지는 데에는 다소간 시간이 소요되었다. 베버 탄생 100주년이 되었던 1964년과 독일사회학학회(Deutsche Gesellschaft für Soziologie, 1910년 베버가 공동 창설했음)가 주최한 베버 관련 학술대회는 정치와 이념적 논의를 공론화하는 기회가 되었는데, 몸젠의 저서에 대한 논의도 이 중 하나에 포함되었다. 칼 야스퍼스(Karl Jaspers)가 한나 아렌트에게 보냈던 편지에 따르면 하이델베르크의 사회학학회가 끝난 후 2년 뒤까지만 해도 논란은 상대적으로 크게 번지지 않았다.

> "몸젠 가족 중 한 젊은이가 베버의 정치에 대한 중요한 책을 집필했습니다(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새로운 자료들 때문입니다). 그에 따르면 베버의 정치 사상은 분명히 모순된 부분이 있으며, 베버는 제국주의, 즉 몸젠의 생각에 따르면 히틀러로 가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난 해 베버의 탄생 10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지만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17]

칼 야스퍼스가 하이델베르크 학생들 앞에서 베버가 사망한 뒤 몇 주 후에 그를 추모하며 했던 언급을 상기해보자:

---

17) "Ein junger Mann aus der Familie Mommsen hat vor kurzem ein wichtiges Buch über Max WebersPolitik geschrieben (wichtig wegen vieler neuer Quellen) und sein politisches Denken festgelegt aufWidersprüchlichkeiten in den konkreten Urteilen, ihn als Vertreter des Imperialismus gekennzeichnetund durch seine Denkungsart für einen Weg zu Hitler erklärt. Im vorigen Jahr, als Max Webers100. Geburtstag gefeiert wurde, hat man an Kleinigkeiten endlos herumgeredet, ohne Sinn für diesenMann." Lettre du 29/4/1966, dans Lotte KÖHLER / Hans SANER (éd.), Hannah Arendt – Karl Jaspers.Briefwechsel 1926 – 1969, Piper, Munich / Zurich, 1985. Traduction française: Hannah ARENDT /Karl JASPERS, Correspondance (1926-1969), traduit de l'allemand par Eliane Kaufholz-Messmer (Paris: Payot, 1995), 840. 야스퍼스는 년도를 혼동했는데, 100주년 행사가 있었던 해는 1964년이었다.

"그에게 애국심이란 정치적 의지 등 근본적인 기준이었습니다. (...)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외교정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조국을 위해 가장 큰 성공을 약속해주는 모든 정당, 이념과 같은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보기에 모든 정치적인 고려들은 문제점에 대한 수단과 같이 기술적인 것들이었며, 원칙에 대한 철학 이념과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18]

그러나 야스퍼스와 같이 베버를 알고 있었던 비판가들은 사회학 학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몸젠의 저서를 비판했다. 일례로 칼 뢰벤슈타인(Karl Loewenstein), 파울 호닉스하임(Paul Honigsheim), 라인하르트 벤딕스(Reinhard Bendix)가 『쾰른 사회학 및 사회심리학지(*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라는 영향력 있는 잡지에 1961년부터 출간했던 글들을 들 수 있다. 뢰벤슈타인은 「국민투표에 기반한 국가 지도자의 '조상'으로서 막스 베버(Max Weber als 'Ahnherr' des plebiszitären Führerstaats, 프랑스어 제목 Max Weber, 'l'ancêtre' du chef d'État plébiscitaire)」이라는 주의를 환기하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19] 특히 그는 몸젠의 저서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을 비난했다.

"1993년에는 '기계'와 함께 교조적인 국민투표 헤게모니(Führerschaft, leadership, HB)가 나타났는데 이는 베버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형태의 것이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베버의 카리스마적인 헤게모니의 지배 원칙, 즉 민주주의적인 기구라는 의미가 급격하게 형성된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련성이 독일 국민이 진심으로 한 지도자, 즉 아돌프 히틀러에게 열광하도록 유인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20]

---

18) "Dieser Patriotismus war ihm letzter Maßstab auch für seinen politischen Willen. [...] Darum war erbereit, wenn es außenpolitisch nötig schien, mit jeder Partei, jeder Weltanschaung zu gehen, die dengrößten Erfolg für das Vaterland versprach. Alle politischen Erwägungen waren ihm daher technischeErwägungen über die sachlich geeigneten Mittel, nicht weltanschaulich-prinzipielle." Karl JASPERS,Max Weber. Rede bei der von der Heidelberger Studentenschaft am 17 (Juli 1920) veranstaltetenTrauerfeier (Tübingen: Mohr / Siebeck, 1926), 17.

19) Karl Loewenstein, "Max Weber als 'Ahnherr' des plebiszitären Führerstaats", dans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13 (désormais : KZfSS, 1961), 275-289.

20) Mommsen, *Max Weber et la politique allemande*, op. cit., 511. "Das Jahr 1933 brachte die-

뢰벤슈타인은 몸젠이 제기한 논리의 개념적 부분을 비판했다. 카리스마적이며 국민투표에 기반한 '국가 지도자'이라는 개념과 그 내용은 히틀러 시대를 살았고, 또 살아남아야 했던 일부 지식인 세대의 회고적인 투영에 불과하다고 논박한 것이다.[21] 물론 1933/1945 이후 '국가 지도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1920년대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과 관련된 것들을 야기했다. 그러나 반대로 공식적인 개념을 가장 타락한 형태로 활용된 것도 역사학자나 사회학자가 이 개념을 분석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당시 사망한 막스 베버가 자신을 복도에 가득 찬 위험한 조상들 중 하나로 만들어 버린 심각한 모욕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뢰벤슈타인은 "몸젠이 베버를 칼 슈미트의 지적인 아버지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하는 등 거칠게 반응했는데, 이는 그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22]

4년 후인 1965년, 칼 뢰벤슈타인은 베버의 정치 사상에 대해 자신만의 관점을 담은『현 시대에서 바라본 막스 베버의 국가 정치학적 시각(*Max Webers staatspolitische Auffassungen in der Sicht unserer Zeit*)』라는 작은 소책자를 발간했는데, 이 책은 1년 뒤 영어로 번역되기도 했다.[23] 몸젠의『그렇지 않다면 탁월한 책(Otherwise excellent book)』은 단 한 번 언급되었는데(70쪽, 각주 16번) 뢰벤슈타인은 이 언급에서도 몸젠이 "베버의 사상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

charismatisch-plebiszitäre Führerschaft 'mit Maschine', wenn auch in ungleich anderer Form, alsWeber dies im Sinne hatte. Gleichwohl wird man ehrlicherweise gestehen müssen, daß Webers Lehrevon der charismatischen Führerschaft, verbunden mit ihrer radikalen Formalisierung des Sinnes derdemokratischen Institutionen, ihren Teil dazu beigetragen hat, das deutsche Volk zur Akklamation derFührerstellung Adolf Hitlers innerlich willig zu machen," MOMMSEN, Politik, 3e éd. (2004), 437.

21) "Begriff und Inhalt des 'plebiszitären Führerstaats' charismatischer Observanz sindRückprojektionen einer Gelehrtengeneration, die durch die Hitlerperiode gegangen ist. Damals, 1918, konnte man sich darunter nichts vorstellen" (Loewenstein, op. cit., 280).

22) "Max Weber wird von Herrn Mommsen zu seinem [Carl Schmitts] geistigem Ahnherrn gestemmpelt." (*Ibid*., 287) "Der tote Max Weber kann sich nicht dagegen wehren, als Schaustück einer perniziösen Ahnengalerie gezeigt zu werden"; "schwere Verunglimpfung," 288.

23) 1 Athenäum Verlag, Francfort/Main ; traduction américaine : *Max Weber's political ideas in theperspective of our time,* traduit de l'allemand par Ricard et Clara Winston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suetts Press, 1966).

물론『쾰른지(*Kölner Zeitschrift*)』에 실린 두 번째 글은 더 온건했다.[24] 하지만 파울 호닉스하임(1885-1963) 역시 막스 베버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목격자로서 몸젠에 대응했다. 그는 몸젠의 저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했으며 베버를 사상가이자 정치가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파악하면서 베버의 인격에 대해서는 슬픈 자가당착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호닉스하임은 글을 끝맺으면서 하이델베르크의 베버를 옹호하는 그룹에게서 들었던 것 중 가장 오래된 진술을 인용했다: 막스 베버는 가장 최후의 인간적인 영웅이다. 호닉스하임의 글이 실렸던 같은 호의『쾰른지』내에 세 번째 글은 라인하르트 벤딕스의 것이었는데, 그는 1년 후『막스 베버. 지적인 초상(1962)』이라는 중요한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벤딕스 역시 몸젠의 저서를 새로운 '보복(Abrechnung)', 즉 히틀러 이후 세대가 막스 베버와 새롭게 결판을 내려는 것으로 간주했다.[25]

물론 이 비극에 대한 글들은 베버의 인간성, 베버와 정치가와의 관계, 심지어 그의 사회학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종류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26] 사실 몸젠의 이 같은 새로운 접근[27]은 베버와 정치가, 정치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는데, 그 바탕은 이론적 글쓰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독일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과 중요한 정치적 선택에 대해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했던 것뿐이었다. 반대급부로 몸젠이 취했던 방식은 해설가로서, 베버의 인격과 그의 내부에 도사린 모순에 대해 평가를 내렸던 결과와 선택이라는 분석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루돌프 피어하우스(Rudolf Vierhaus)가 뢰벤슈타인이나 호닉스하임, 야스퍼스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주장을 펴기 시작한 것은 1963년부터의 일이었다. 피어하우스가 볼프강 몸젠의 저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쓴 글의 중요한 대목 하나를 살펴보자:

---

24) Paul Honigsheim, "Max Weber und die deutsche Politik. Bei Gelegenheit des gleichnamigenBuches von Wolfgang Mommsen", dans KZfSS 13 (1961), H.2, 1-12.

25) Reinhard Bendix, "Einige Bemerkungen zu einem Buch von Wolfgang Mommsen", dans *KZfSS* 13 (1961), 258-261, citation 258.

26) Voir à ce sujet : Stefan Breuer, *Max Webers tragische Soziologie. Aspekte und Perspektiven, Mohr* / Siebeck, Tübingen, 2006. Dans sa conférence au congrès d'Heidelberg en 1964, Raymond Aron avait d'ailleurs caractérisé la philosophie politique de Weber de tragique, 107.

27) 몸젠의 저서 중 프랑스어 판본의 서문을 참조한다.

"(...) 만약 제국이 몰락한 뒤 베버가 제기했던 국민투표-민주주의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Führertum)및 국가-사회주의의 전체주의적인 리더십 사이에 특정한 연관이 있다고 이해한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막스 베버, 정치가』에 관한 비판적 분석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베버는 관료주의와 정당에 기반을 둔 현대 국가가 어떻게 책임감 있는 지휘를 하고, 결정을 하며, 의식을 가진 정치적 의지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목적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 등의 걱정스러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1918년 이후에는 독일정부의 의원내각제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 국민투표에 기반을 둔 리더십에 대해 주장하게 된 것이다. 베버는 대중에 대한 고려는 거의 않았으며 민주주의에 대해 확실한 신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28]

1960년을 전후의 20세기 독일사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은 시작에 불과했는데, 독일사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였다. 베버를 통해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체제들 간에 연관성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독일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확신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당시 독일의 민주주의는 독일의 가까운 과거와 다른 쪽에 자리 잡았던 공산주의 세력과도 구별되어야 했다. 연방공화국의 전통적인 정치가들은 히틀러가 권력을 쥘 수 있었던 것은 우파와 좌파 내의 극단주의자들이 공화국에 반대되는 객관적 연합을 실행한 덕분에 가능했다고 보았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국가-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연합으로 인해 암살당했다고 보는 역사관에서는 부르주아지들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이들을 대변하던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비판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독일의 사회학 내에 베버주의자들의 전통에서 보자면 몸젠

28) "[...] realisiert man die Tatsache, daß es einen tendenziellen Zusammenhang zwischen dem vonWeber nach dem Sturz der Monarchie konzipierten plebiszitär-demokratischen, charismatischenFührertum und dem totalitären des Nationalsozialismus gibt, so muß auf dieser Frage in einerkritischen Analyse "Max Weber als Politiker" das Hauptgewicht liegen. In der Überlegung und Sorge,wie man im modernen Verwaltungs- und Parteienstaat verantwortliches, entscheidungsbereitesFührertum ermöglichen könne, wie bewußter politischer Gestaltungswille zum Zuge zu kommenvermöchte, ist WEBER über die Forderung nach Parlementarisierung des deutschen und preußischenRegierungssystems nach 1918 hinausgeschritten zu derjenigen der plebiszitären Führerdemokratie; einüberzeugter Demokrat ist er bei seiner Geringschätzung der Massen nicht gewesen." Rudolf Vierhaus, *ierteljahrschrift für Sozial- und Wirtschaftgeschichte* (VSWG), 50(3) (1963), 273-277, citation 275.

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논박은 이에 반대하는 무리들에게 오랫동안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다. 한편으로 스스로 베버의 유산의 지킴이라 불렀던 요하네스 빈켈만(Johannes Winckelmann) 같은 신봉자들도 있었는데, 몸젠은 이들을 "베버 전통파"라고 불렀다. 다른 한편으로는 몸젠의 결정적인 영향력 하에 베버 전집에 대한 비평판을 기획했던 역사가, 정치학자, 사회학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간극은 오늘날까지 빈켈만과 몸젠의 일부 후계자들 간의 논의와 갈등에 존재하고 있다.

1964년 하이델베르크에서 베버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었던 독일사회학회의 주제는 "막스 베버와 오늘날의 사회학"이었다.[29] 하지만 학회 조직자들은 몸젠의 저서에 대한 논의들을 프로그램에 명기할 수는 없었다. 학회의 세 번째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가치론적인 중립성과 객관성", "막스 베버와 권력의 정치학" 그리고 "산업화와 자본주의". 3세션의 서두 발표는 외국 학자들이 맡았다: 탈콧 파슨스(Talcott Parsons), 레몽 아롱(Raymond Aron), 허버트 마루쿠제(Herbert Marcuse). 이를테면 레몽 아롱이 맡은 학문과 윤리에 관련된 정치가에 대한 논의에서는 볼프강 몸젠과 한스 폴 바르트(Hans Paul Bahrdt, 괴팅겐), 칼 W. 도이치(뉴 해븐, 미국), 에듀아드 바움가르텐(Eduard Baumgarten, 만하임), 아돌프 아른트(Adolf Arndt, 베를린)가 토론을 맡았다. 이 논의는 『쾰른지』에 출간되었던 몸젠의 저서에 대해 설전과 같은 논쟁을 피해갔다. 레몽 아롱[30]이 몸젠에 대한 분석의 대부분을 맡아 발제했으므로 혹은 그 때문에 학회의 논의는, 종종 모순적이기도 했지만 심도 있는 문제를 다룰 수 있었던 까닭에 아롱은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학회가 유익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대립이 있었던 것도 세 번째 세션으로, 그 주제는 "산업화와 자본주의"였다. 허버트 마르쿠제[31]의 서두 발표는 다른 측면

29) *Max Weber und die Soziologie heute. Verhandlungen des 15. Deutschen Soziologentages,* im Auftrage der Gesellschaft herausgegeben von Prof. Dr. Otto Stammer (Tübingen: Mohr / Siebeck, 1965). Cité désormais: *Verhandlungen*.

30) Raymond Aron, "Max Weber et la politique de puissance" (1964), dans ID., *Les étapes de lapensée sociologique. Montesquieu. Comte. Marx. Tocqueville. Durkheim. Pareto. Weber* (Paris: Gallimard, 1967), 642-656. Version allemande : "Max Weber und die Machtpolitik", dans *Verhandlungen,* 103-120 (la discussion y est reproduite également: 121-156).

에서 베버를 공격한 것으로, 그는 1918-1919년 혁명 당시 베버가 사회주의 좌파와 맞서 우파들과 연합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몸젠에 따르면 베버는 독일 부르주아지와 귀족 간 연합에 항상 대항했으며 온건좌파 사회주의자들과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몸젠을 베버에 대한 검사의 역할에서(이 역할은 몸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여된 것이지만) 베버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어제 사람들이 말하길 나는 막스 베버에 반대하는 검사라고 하던데, 나는 현대의 이 위대한 자유주의자에게 큰 경외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은 큰 상처가 되었다. 오늘은 베버의 옹호자 역할이라는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역사의 객관성 때문일 것이다."[32]

최소한 이번에는 몸젠도 마루쿠제가 제기한 주장에 반대하지 않았다:

"자본주의적 이성의 중립(wertfrei)이라는 개념은 베버 추종자들의 분석에서 *비판*이라는 개념으로 변질되었다. 여기서 비판이란 '순수한 학문적' 개념의 비판뿐 아니라, 인간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식으로 비판하는, 즉 가치판단을 내리고 목적을 이미 정해놓은 비판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제 비판은 중단되고, 이른바 회피할 수 없는 것을 수용하는 변명이 되어버렸다. 즉 더 해로워져서 비판은 질적으로 다른 역사적 합리성과 같은 가능한 대안을 고발하는 식이 되었다."[33]

---

31) 이 발표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프랑스어 번역본으로 출간되었다. Ce texte a connu au moins trois traductions françaises. Herbert Marcuse, "Sur Max Weber. Industrialisation et capitalisme," dans *Aletheia* 6, avril 1967, p. 113-128 ; "Industrialisation etcapitalisme chez Max Weber", dans H. Marcuse, *Culture et société,* traduit par Gérard Billy, LesÉditions de Minuit, Paris, 1970, p. 271-293 ; "Industrialisation et capitalisme", traduit par Stéphane Rossignol, dans *Actuel Marx* 11 (1992), 21-40.

32) "Ich bin gestern hier [dans la section de Raymond Aron] als Staatsanwalt gegenüber Max Weberbezeichnet worden, ein Vorwurf, der mich tief getroffen hat, weil ich diesen letzten großen Liberalender Neuzeit sehr verehre. Heute bin ich in die eigentümliche Lage gekommen, aus Gründen einfacherhistorischer Objektivität, als sein Verteidiger aufzutreten […]." (Mommsen, dans la discussion del'exposé de Marcuse, 215).

33) MARCUSE, dans *Verhandlungen*, p. 166 : "Der wertfreie Begriff der kapitalistischen Rationalitätwird im Vollzug der Weberschen Analyse zum kritischen Begriff – kritisch nicht nur im Sinn 'reinwissenschaftlicher',sondern 'wertender', zwecksetzender Kritik der Verdinglichung undEntmenschung. Aber dann macht die Kritik halt, akzeptiert das angeblich Unabwendbare und wird zurApologetik

마르쿠제에 따르면 막스가 예견한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제 경쟁에서 민족의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것은 대규모 산업의 성장뿐이다. 경제는 힘 있는 민족국가의 국가이성을 부여한다. 가치와 무관한 경제(wertfreie Ökonomie)(공평하고 중립적인 경제학)는 초학문적인 가치에 양보해야 한다. 역사이성처럼 국가이성은 산업화와 민족의 비약적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계층의 지배를 필요로 한다: 지배력이 약해지는 부르주아지 대신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케사르가 필요한 것이다.[34] 이는 사실 몸젠도 분석했던 베버의 정치적 신념의 요체를 마르크스적인 언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볼프강 몸젠을 우상파괴자로 비난했던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것처럼 참신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39년에 칼 뢰비트(Karl Löwith)가 막스 베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 "그는 한 지도자(Führer)가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에 대해 그가 긍정적으로 말했던 것은 비이성적이며 카리스마적인 지배와 '기계에 기반한(즉 기계처럼 작동하는 행정체제에 기반한, HB, cf. MWG I/17, 224 (『직업으로서의 정치(Politik als Beruf)』) 지배'에 대해 격찬했을 때였다.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은 의도적으로 내용을 말하지 않거나 정치적 수사라는 형식적 특징을 활용했을 경우인데,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정이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치에 대해 단언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35]

– schlimmer noch: zur Denunziation der möglichen Alternative: einer qualitativ anderengeschichtlichen Rationalität."

34) "Es ist eine Gefahr, wenn (wie in Deutschland die Junker) eine 'ökonomisch sinkende Klasse dieHerrschaft in der Hand hält'. [마르쿠제는 개회식 강연의 한 대목에서 베버를 인용했다. "경제적으로 쇠퇴해가는 경제적 계층이 계속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위험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OP, 131)] So wird, unter dem Druck deraußerwissenschaftlichen, politischen Wertsetzung, die ökonomische Wissenschaft bei Max Weber zurpolitisch-soziologischen Kritik des von Bismarck eingerichteten Staates. Und diese Kritik antizipiertdie Zukunft: die geschichtlich berufene Klasse, das Bürgertum, ist in Deutschland 'unreif'; in seinerSchwäche sehnt es sich nach einem neuen Cäsar, der ihm die Tat abnimmt." (MARCUSE, dans *Verhandlungen*, 167).

35) Karl Löwith, dans *Maß und Wert,* 3. Jg., Heft 1 (1939), 171. Cité par Mommsen, *Politik*, 2e éd. (1974), 437, note 73. "Er hat den Weg zum autoritären und diktatorischen Führerstaat

뢰비트가 한 말은 여기서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1919)에 대한 컨퍼런스에서 제기한 한 구절과 연관이 있다: "그렇지만 대안은 단 한 가지뿐이다: 즉 '기계'에 기반한 지도자의 민주주의 혹은 지도자가 부재한 민주주의, 즉 사명(직업이 없는 정치가)이나 카리스마적 자질이 없는 전문가인 정치인의 지배".[36]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진짜 면모가 아직 절반 정도만 알려졌던 1939년에 뢰비트가 썼던 글과 달리, 몸젠의 저서는 단순한 고발성 행위가 아니었다. 수많은 주석자들이 책 전체가 그렇다고 일반화시키고 비난했던 그 구절들은 독일 역사 과정에 대한 질문의 수준이었다. 독일의 첫 번째 국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사상가들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제국주의 시대에 가장 맹렬한 비판을 받았고 빌헬름 2세의 진짜 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지식인들은 누구였는가? 단 진짜 중요한 한 명의 적은 누구였는가? 의회주의의 지칠 줄 모르는 옹호자였던 그가 15년도 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그는 어떻게 민주주의 이론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일까?

볼프강 몸젠은 베버의 인격에서, 그의 이율배반적인 정치 사상 구조에서, 독일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그의 반응에서, 역사 전반에 대한 그의 시각에서, 다시 말해 점차 강화되는 관료주의와 모든 사회관계의 형식적인 합리화가 결과적으

---

positiv dadurchgebahnt, daß er überhaupt die irrationale 'charismatische' Führerschaft und die 'Führerschaft mitMaschine' vertrat, und negativ durch die gewollte Inhaltslosigkeit, durch das Formelle seinespolitischen Ethos, dessen letzte Instanz nur die entschiedene Wahl einer Wertsetzung unter anderenwar, gleichgültig welcher." Traduction dans Mommsen, *Max Weber et la politique allemande,* op. cit., 511, n. 74 : "Il a frayé la voie de l'État hégémonique autoritaire et dictatorial positivement en défendant l'hégémonie irrationnelle 'charismatique' et la 'domination hégémonique avec machine', etnégativement par l'absence voulue de contenu, par l'aspect formel de son éthos politique dont ladernière instance n'était que le choix résolu d'une règle valorielle parmi d'autres, peu importe laquelle."

36) "Aber es gibt nur die Wahl, Führerdemokratie mit 'Maschine' oder führerlose Demokratie, dasheißt: die Herrschaft der 'Berufspolitiker' ohne Beruf, ohne die inneren charismatischen Qualitäten,die eben zum Führer machen." Max WEBER, *Wissenschaft als Beruf. 1917/1919. Politik als Beruf. 1919* (MWG I/17), herausgegeben von Wolfgang J. Mommsen und Wolfgang Schluchter inZusammenarbeit mit Birgitt Morgenbrod (Tübingen: Mohr / Siebeck, 1992), 224. Traductionfrançaise: Max Weber, *Le savant et le politique. Une nouvelle traduction. La profession et lavocation du savant. La profession et la vocation de politique,* préface, traduction et notes de CatherineColliot-Thélène, La Découverte (Paris: Poche, 2003), 180.

로 시스템의 마비(Verkrustung)와 모든 자유를 질식하게 만들었다는 걱정에 대한 답 혹은 답들을 찾았던 것이었다.[37]

베버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힘과 권력이라는 아이디어는 더 이상 놀라울 만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매우 온건하다고 평가된 독일 연방국가의 초대 대통령 테오도르 호스(Theodor Heuss)도 1919년 경 베버와 자주 만났으며, 1890년대부터 베버는 권력에 대해 심취해 있었다("Attraktion des Machtgedankens auf Weber")고 이야기했을 정도였다. 호스는 이러한 생각을 베버의 『정치저작』(*Politische Schriften*)의 제2판에 「현재의 베버(Max Weber in seiner Gegenwart)」라는 서문에서 밝힌 바 있다. 『정치저작』은 1958년 요하네스 빈켈만(Johannes Winckelmann)이 편집했으며, 이 책은 몸젠의 저서가 출간되기 1년 전에 출판되었다. 호스는 베버의 중요한 정치적 문제란 정치가가 전문 관료주의(Fachbeamtentum)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디서 정치 지도자 계층 후보들[38]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였다고 말했다.

그 저서의 두 번째 판이 발행되던 1974년, 몸젠은 몇 가지 표현을 완화시켰으나 중요 사상이나 가설들은 수정하지 않았다. 반대로 새로운 글들을 발표해 그의 입장을 보다 공고히 했다. 몸젠은 두 번째 판의 긴 발문을 통해 그의 저서가 제기한 가설들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지난 15년간의 모든 논의를 자세하게 기술했다. 불행하게도 이 발문은 프랑스어판에서는 생략되었는데, 만약 발간되었다면 이 발문은 이러한 논쟁에 대한 최고의 안내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샘 휨스터(Sam Whimster)가 몸젠의 저서를 "초월적인 책(transgressive book)"이라고 평가했다.[39] 그의 언급은 사실이지만, 특히 몸젠의 책 자체보다는

37) 레몽 아롱의 발표에 대한 몸젠의 답변. 1964년 사회학 학회에서 몸젠은 베버의 권력에 대한 생각에서 "보편적 역사 이성"(universalgeschichtliche Gründe에 대해 주장했다. Wolfgang J. Mommsen, "Diskussion über 'Max Weber und die Machtpolitik'". *Verhandlungen,* 136 sq. Cf. Wilfried Nippel (éd.), *Virtuosen der Macht. Herrschaft und Charisma von Perikles bis Mao* (Munich: C. H. Beck, 2000), 18.

38) "Es geht also letztlich darum, wo die Reserven für eine politische Führungsschicht liegen [···]". Max Weber, *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 3e éd. augmentée, avec une introduction (Geleitwort)de Theodor Heuss, édité par Johannes Winckelmann (Tübingen: Mohr / Siebeck, 1971), citations XIIet XX.

39) Dans un article sur Mommsen dans le dernier numéro des *MWS* (MWS 5(1), 2005).

1960년 전후의 독일과 독일 대학의 상황이 더욱 그러했다. 우선 이 저서의 새로운 점으로 그 책의 세세한 목차를 들 수 있다. 몸젠은 그 시대의 중요 정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한 지식인에 대해 진지한 역사적 조사를 실행했다: 비스마르크의 유산이라는 부담, 농업 자본주의에서 산업 자본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국가 내외의 안정화 문제, 패전 이후 혁명과 의회민주주의 건설 사이에서의 독일의 미래 등. 몸젠은 이 훌륭한 박사논문을 통해 마치 하이델베르크 학회에서 레몽 아롱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처럼 베버의 정치사회학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많이 하지 않았다.

Ⅲ. 볼프강 몸젠의 이후 일부 저작에 대한 단상

볼프강 몸젠은 196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사이에 여러 소논문들을 집필했는데, 이 때 연구들은 베버의 정치 문제들을 베버의 사회학 저서 분석과 연결해 더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이었다: 1974년 출간된 몸젠의 책은 이미 그러한 경향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은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1963: "막스 베버에서 국민투표로 선출된 지도자의 민주주의 개념에 관해(Zum Begriff der "plebiszitären Führerdemokratie" bei Max Weber)"

1965: "막스 베버의 보편 역사 및 정치 사상(Universalgeschichtliches und politisches Denken bei Max Weber)"

1971: "한계상황에 처한 한 자유주의자(Ein Liberaler in der Grenzsituation)"

1981: "막스 베버의 정치 사상에서의 모순 구조(Die antinomische Struktur des politischen Denkens Max Webers)"[40]

1983: "베버에 있어서 합리화와 신화(Rationalisierung und Mythos bei Weber)"[41]

---

40) 이 논문과 위 세 개의 논문은 1974년에 다음 저서로 재출간되었다. Wolfgang J. Mommsen, *Max Weber. Gesellschaft, Politik und Geschichte* (Francfort/Main: Suhrkamp, 1974). Traductions anglaises dans: Wolfgang J. Mommsen, *The Age of Bureaucracy. Perspectives on the Political Sociology of Max Weber* (Oxford: Basil Blackwell, 1974); Wolfgang J. Mommsen, *The Political and Social Theory of Max Weber. Collected Essays* (Oxford: Polity Press, 1989, Paperback 1992).

1989: "막스 베버의 정치와 정치이론(Politik und politische Theorie bei Max Weber)"[42]

완벽한 목록은 아니지만 이 저서 목록에 지배사회학에 관한 몸젠의 최근 저서도 포함되어야 한다.

2001: "예속적인 미래 직전의 정치학. 막스 베버의 권력 사회학과 정치적 측면(Politik im Vorfeld der ''Hörigkeit der Zukunft''. Politische Aspekte der Herrschaftssoziologie Max Webers)"[43]

몸젠의 분석은 간략하고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개괄될 수 있다. 그는 라인하르트 벤딕스와 퀴엔더 로스(Guenther Roth)가 옹호했던 전통적인 설명에 반대되는 입장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몸젠의 주장에 따르면 베버에게 있어 학문과 정치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정치적 문제와 과제들은 학문과 정치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베버의 학문 연구에 확실한 자국을 남겼다. 베버에게 있어 정치에 정적으로 참여하는 데서 학문의 영감을 받을 수도 있었으며, 그 반대일 수도 있었다.[44] 베버는 가치판단의 자유(Werturteilsfreiheit)에 의해 정치

41) Wolfgang J. Mommsen, "Rationalisierung und Mythos bei Weber", dans Karl Heinz Bohrer (éd.), *Mythos und Moderne. Begriff und Bild einer Rekonstruktion* (Francfort/Main: Suhrkamp, 1983), 382-403. *Mythos und Moderne. Begriff und Bild einer Rekonstruktion* (Francfort/Main: Suhrkamp, 1983), 382-403.

42) Wolfgang J. Mommsen, "Politik und politische Theorie bei Max Weber", *in* Johannes Weiss (éd.), *Max Weber heute. Erträge und Probleme der Forschung* (Francfort/Main: Suhrkamp, 1989), 515-542.

43) Edith Hanke / Wolfgang J. Mommsen (éd.), *Max Webers Herrschaftssoziologie. Studien zu Entstehung und Wirkung* (Tübingen: Mohr / Siebeck, 2001), 303-319.

44) Cf. en particulier la mise au point de Wilhelm Hennis, "Der Sinn der Wertfreiheit. Zu Anlaß undMotiven von Max Webers 'Postulat' ", dans Oscar W. Gabriel (éd.), *Der demokratische Verfassungsstaat. Theorie, Geschichte, Probleme. Festschrift für Hans Buchheim zum* 70 (Geburtstag, Oldenbourg, Munich, 1992), 57-114. Ce texte a été repris dans : Wilhem Hennis, *Max Webers Wissenschaft vom Menschen. Neue Studien zur Biographie des Werks* (Tübingen: Mohr / Siebeck, 1996). Traductions : "Estar libre de valores como un precepto de distanciamiento", dans Arbor, 539/40 (1991), 11-27; "Il significato della avalutatività", dans *Materiali per una storia della culturagiuridica* XXIII (1993), 159-177; "The meaning of Wertfreiheit", dans *Sociological Theory* 12 (1994), 113-125.

와 학문 분야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정치와 학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두 분야 간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모든 카데데어데마고기(Kathederdemagogie), 즉 대학교수의 권위를 민중선동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다. 몸젠은 이 점에 대해 지배 사회학의 예, 특히 의회 형태의 민주주의 지배이론에 기대에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전쟁 기간 동안 베버가 몸젠의 말대로 민주주의적 지배라는 개념을 발전하도록 만들었던 독일의 빌헬름 2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었다. 이는 개인이나 시민 그리고 인민 주권의 자기결정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민주주의 체계의 경쟁력(Leistungsfähigkeit)[45] 과 역량이라는 사실에 의한 것이었다. 베버가 인식한 바에 따르면 독일이라는 젊은 국가는 곧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독일의 수준을 영국과 프랑스 수준으로 올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때문에 정치사회학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민주주의 체제 역량을 실제로 발휘 가능한 역량과 경쟁력이었다. 독일 공화국의 존재가 위협받는 가운데 베버는 민주주의 지배의 헌법적, 입법적 규범을 단순히 형식적인 조건, 즉 정치 엘리트가 아니라 카리스마적인 인물 같은 위대한 지도자 인물(Führerpersönlichkeiten)[46]의 부상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라 간주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건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이는 몸젠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지배, 즉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선택(charismatische Führerauslese)에 대한 조건은 시민들의 정치적 성숙도와 평등한 권리였기 때문이다(531). 베버에게 있어 민주주의 이론은 더 이상 자연법에 기초해 세워질 수 없었는데, 민주주의 정치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가 선호하는 대상이자 귀족의 지배에 대항하는 성격을 지닌 관료주의와 대치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베버는 민주화라는 모호한 용어, 즉 "가능한 한 '인민', 실제로는 정당 지도자들이 '직접' 지배할 수 있도록 '직업 공무원들'의 권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미의 민주화를 피하고자 했다. 그리고 베버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 점은 몸젠이 언급하기를 잊어버린 것인데):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조화된 관료주의화,

45) Mommsen, "Politik und politische Theorie bei Max Weber", dans WEISS, op. cit., 526. Lespassages suivants se réfèrent à ce texte.

46) *Ibid.*, 527.

지배 그룹에 맞서는 피지배자들의 평등화이기 (...) 때문입니다."[47]

몸젠에 따르면 막스 베버는 조금씩 민주주의의 기능적 모델을 결국 카리스마적 지도자 중심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카리스마적 모델에 대한 민주주의 지도자의 지배("demokratische Führerherrschaft charismatischen Zuschnitts", 533)는 강한 의회의 존재뿐 아니라 자결권이 국가 건설의 본질적인 원칙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이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민주주의 사회의 존재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볼프강 몸젠은 이 개념에 대해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 병존한다는 점에서 모순적 모델이라 명명했다. 이 모델은 두 가지 형태의 정치윤리 개념에 대해 설명한 그의 서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념윤리Gesinnungsethik)와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가 그것으로 베버는 몸젠의 해석과 같이 두 가지 모두를 정당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계질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정치윤리의 이 두 가지 척도는 종교적으로 형성된 모든 윤리와 풀 수 없는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개념의 경우 폭력이나 폭력의 실행이 이 개념들의 특정 행위수단이 되기 때문이었다. 베너는 폭력을 정치에 대한 독자적이고 환원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해, 이를 마키아벨리의 전통 안에 포함시켰다. 정치와 윤리가 원칙적으로 양립불가능하다는 점은 정당한 지배의 세 가지 유형과 관련된 이론과 연관이 있다: 베너는 정치제도의 정당성이라는 개념의 규념적,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폐기하고 정치의 모순적인 구조를 가치 독립적인 영역으로 간주함으로써 정치이론의 긴 전통과 단절해버렸다(537).

요컨대 막스 베버는 몸젠의 최근 연구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동시에 매우 미묘한 차이가 있는 인물로 나타난다: 그는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정치사상가 중 하나이다; 베버가 자신의 거대한 저작에 대해 가장 중요한 영감을

47) *Ibid*., 531. 몸젠은 여기서 지배의 사회화라는 변화를 언급했다: "eine 'Minimierung' der Herrschaftsgewalt der 'Berufsbeamten' zugunsten der möglichst 'direkten' Herrschaft der 'Demos', das heißt aber praktisch : seiner jeweiligen Parteiführer". (Max Web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 Grundriss der verstehenden Soziologie.* 5e éd., besorgt von J. Winckelmann (Studienausgabe) (Tübingen: Mohr / Siebeck, 1972, 568). 몸젠은 베버가 민주화라는 '불확실한' 개념을 회피하는 것을 민주주의적 지배의 축소된 의미라고 대체했으며, 이 부분을 다소간 강조한 바 있다.

받은 것은 바로 정치 영역에서였다." 베버에게 있어 독일 정치의 주요 문제는 능력 있는 지도자 인물의 부족이었던 것이다.[48] 베버는 독일 좌파에게 독일 민주주의에 있어 선사시대나 당시 다름없었던 당시로서는 가장 놀라운 인물 중 하나였다. 그리고 지도자를 수반한 국민투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창안자의 의도와 같이 민주주의와 양립 가능한 것이었으며 정치이론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49] 몸젠의 분석에서 중요 사상은 확고한 자유주의자이자 거친 민족주의자였던 베버의 사상에서 모순성이 지니는 위치와 같았다.

중요한 동시에 자극적인 볼프강 몸젠의 연구는 전문가들의 베버 저작의 정치적 측면에 대한 성찰 중 일부에 불과했다. 보다 균형 잡힌 인식을 위해서는 몸젠의 접근에 돌프 스테른베르거(Dolf Sternberger), 빌헬름 헤니스(Wilhelm Hennis) 그리고 다른 학자들을 대조시킬 필요가 있다.[50] 그러나 이것은 본 연구의 목적

---

48) Cf. Mommsen, "Ein Liberaler in der Grenzsituation", dans ID., *Max Weber. Gesellschaft, Politik und Geschichte*, op. cit., 39. 이 문제는 "재조직된 독일의 의회와 정부"에 관한 베버의 사유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dans OP, 307-455.

49) Cf. MOMMSEN, "Zum Begriff der 'plebiszitären Führerdemokratie' bei Max Weber", dans ID., *Max Weber. Gesellschaft, Politik und Geschichte,* op. cit., 45, 67.

50) 잊어버릴 위험이 있으니 다음과 같은 이들을 인용한다.
- Andreas Anter, *Max Webers Theorie des modernen Staates,* Herkunft, Struktur und Bedeutung (Berlin: Duncker & Humblot, 1995).
- Stefan Breuer, *Bürokratie und Charisma. Zur politischen Soziologie Max Webers,* Wissenschaftliche (Darmstadt: Buchgesellschaft, 1994).
- Jean-Marie Vincent, *Max Weber ou la démocratie inachevée* (Paris: Éditions du Félin, 1998).
- David Beetham, *Max Weber and the Theory of Modern Politics* 2e éd. (Oxford: Polity Press, 1985).
- Gary L. Ulmen, *Politischer Mehrwert. Eine Studie über Max Weber und Carl Schmitt,* trad. par Urula Ludz (Weinheim: VCH, 1991) (coll. Acta Humaniora).
- Lawrence A. Scaff, *Fleeing the Iron Cage. Culture, Politics and Modernity in the Thought of Max Weber* (Berkeley / Los Angeles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 Wilhelm Hennis, *Max Webers Fragestellung. Studien zur Biographie des Werks,* Mohr / Siebeck, Tübingen, 1987. Trad. fr. : *La problématique de Max Weber,* traduit par Lilyane Deroche-Gurcel (Paris: PUF, 1996).
- Wilhelm Hennis, *Max Webers Wissenschaft vom Menschen,* Neue Studien zur Biographie des Werks (Tübingen: Mohr / Siebeck, 1996).
- Wilhelm Hennis, *Max Weber und Thukydides,* Nachträge zur Biographie des Werks (Tübingen: Mohr /Siebeck, 2003).
- Dolf Sternberger, "The problem of legitimacy: Max Weber's concept reconsidered", dans Jean-Claude Casanova et al., *Sciences et conscience de la société. Mélanges en l'honneur de Raymond*

은 아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례로『막스 베버 연구(Max Weber Studies)』최근호가 "막스 베버의 정치 이론가로서의 관련성"에 대해 다룬 것을 들 수 있다.[51] 1895년 개회사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가치에 대한 문제, 가치의 다양성, 가치론적인 중립성, 국가 개념에 있어 영예의 의미 등 여러 주제가 다루어졌는데 이 중 어떤 것도 놀라운 주제는 아니었으며, 상반되는 논의가 벌어지지도 않았다. 본 연구에 있어 흥미로운 단 한 가지 토론은 미카엘 Th. 그레벤(Michael Th. Greven)[52]이 1998년에 출간된 카리 팔로넨(Kari Palonen)의 저서[53]에 대한 것이었다.

팔로넨에 이어 미카엘 크레벤은 정치 행위라는 개념이 사회학의 기본 범주로 논의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베버는 행위로서의 "'현대' 정치를 본질적으로 '폭력성(Gewaltsamkeit)'이라 정의되는 '정치 조직' 개념과 연결시켰는데, 이 폭력성은 정당하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195).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베버는 정치 체제나 정치의 목적이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제의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된다". 수단과 목적으로 정의되는 베버의 근대국가 이론에 의하면 "그는 근대의 규범적인 제도주의의 길로 향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리더십과 엘리트,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198). 그레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인의 바람직한 윤리적 자질에 집중했던 것은

Aron (Paris: tome I, 1971), 209-229.

- Dolf Sternberger, "Max Weber und die Demokratie", dans ID., *Ich wünschte ein Bürger zu sein'. Neun Versuche über den Staat* (Francfort/Main: Suhrkamp, 1967), 93-113. (initialement paru dans *Festschrift zum 65. Geburtstag von Michael Freund – Macht und Ohnmacht des Politischen,* Cologne: Kiepenheuer & Witsch, 1967).
- Kari PALONEN, Das '*Webersche Moment'. Zur Kontingenz des Politischen* (Opladen / 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1998).

51) *MWS*, 4(2), juillet 2004. 이번 호는 2002년-2003년 사이에 SCASSS (Uppsala)에서 Sven Eliaeson과 Kari Palonen가 개최한 학회 원고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52) Michael Th. GREVEN, "Max Weber's Missing Definition of 'Political Action' in his 'Basic Sociological Concepts': Simultaneously a Commentary on Some Aspects of Kari Palonen's Writingson Max Weber", *MWS* 4(2) (juillet 2004), 17-200.

53) Kari Palonen, Das '*Webersche Moment'. Zur Kontingenz des Politischen* (Opladen / 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1998).

정치 체제의 최종 목적과 결정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 놓았다"(199). 개괄적인 결론이 다음과 같았던 만큼 사실 더 이상 진전될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베버의 현대정치에 대한 관찰과 그의 엄격한 사회학적 행위 이론 간에 통합적인 것은 없었다"(179).

이러한 논리적 난점이 발생한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 이론의 여지가 있는 방법론적 선택 때문인데, 이러한 선택은 베버의 정치 개념을 '경제와 이익사회(Wirtschaft und Gesellschaft)'의 조직적이며 개념적인 부분으로만 이해하고자 한 것과 몸젠과 헤니스의 접근과 달리 베버의 인격, 베버라는 인간 자체와 그의 정치에 대한 태도, 구체적인 정치적 입장들을 완전히 배제해 버린 것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1964년 사회학 학회에서의 논의는 그러한 선입관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논거들을 제시했다. 이 질문에 대한 마지막 발언까지 포함된 몸젠의 이후 저작들은 이러한 면을 더 악화시켰다. 정치적 글쓰기든, 지배 사회학에서든 막스 베버에 대한 논증은 항상 모순된 구조로 특징지워졌던 것이다.[54] "(...) 베버의 신념에 다르면 사회학적 분석은 이성적 방법으로 통제된 입장 표명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각기 다른 성질의 가치체계(Werthaltungen)를 위한, 혹은 단호한 정치적 사상에 대한 태도 정하기라고 할 수 있다.[55]

최근의 논의에 대한 이 같은 간략한 일별은 볼프강 몸젠이 취한 관점의 특징이 무엇인가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몸젠이 보기에 막스 베버라는 한 인간과 그의 저작에 있어서 정치라는 문제는 독일 제국의 역사 하에 베버가 마주했던

54) "Die Argumente werden je nach der verfolgten Zielsetzung jeweils bis zur Grenze der jeweiligenDenkmöglichkeiten vorangetrieben und geraten am Ende, formal gesehen, miteinander inWiderspruch. Das Prinzip der Rationalisierung von Herrschaft kraft bürokratischer Apparate tendiertebenso zu absoluter Vollendung wie umgekehrt der Führungsanspruch eines charismatischen Politikers keine immanenten Grenzen kennt. Es wäre angesichts dieses Befundes verfehlt, eineHarmonisierung der Auffassungen Max Webers auf einer mittleren Linie zu versuchen; eben diesletztere lief seinem Denken gänzlich zuwider," (Mommsen in Hnake, 304).

55) "(...) die soziologische Analyse war nach Webers Überzeugung eine notwendige Vorbedingung für eine rational kontrollierte Option, sei es für bestimmte politische Ideale, sei es für Werthaltungen unterschiedlichen Charakters, ohne diese als solche zu mediatisieren" (*Ibid.*, 305; 몸젠은 여기서 이성적인 학문의 분석들이 가치 판단으로 이어지는지 혹은 책임윤리에 대한 행위 결정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해 볼프강 슐르흐터[Wolfgang Schluchter])와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일상적 혹은 실존적인 근원이라는 문제, 그리고 항상 그가 취했던 구체적인 정치적 선택이라는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W. J. 몸젠이라는 역사가에게[56] 베버가 생각했던 정치 문제란 이론적 고려뿐 아니라 분석적 고려이기도 했는데, 분석적 고려란 독일 정치활동에 대한 베버의 참여와 우리 사회의 미래와 과거를 이해하고자 하는 가장 야심찬 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국 이러한 계획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는 모순적인 면의 분석을 통해 이를 이해하고자 했으며,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시도는 상당 부분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56) Cf. Hans-Ulrich Wehler, "Wolfgang J. Mommsen 1930 – 2004", dans *Geschichte und Gesellschaft,* 31 (2005), H.1, 135-142.